

◆◆◆ 미국 ◆◆◆

독점계약업체 가격폭리행위에 금지소송 제기 & TFT-LCD 가격담합 3개 업체에 5억 8,500만 달러 벌금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조속·영아용 심장병(PDA) 약품인 Indocin을 제조하는 Ovation이 시장독점력을 남용, 자사 약품가격을 독점업체가 되기 이전에 비해 1,300%나 인상함으로써 독점이윤을 획득했다면서 미네소타주 연방지방법원에 불법적 이윤행위 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일리노이주에 본사를 둔 Ovation는 제약회사인 Merck으로부터 PDA의 유일한 치료약품인 Indocin을 2005년 8월에 취득하고, Indocin의 가격을 병당 26달러에서 36달러로 인상했다. Ovation는 심장병 치료제 시장의 유일한 경쟁약품인 NeoProfen의 제조권을 Abbott연구소로부터 2006년 1월에 취득, 심장병 치료제 시장에서 실질적인 독점공급업체가 되었다. 이후 Ovation는 Indocin 가격을 병당 36달러에서 500달러로 책정해 현재까지 판매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FTC는 "Ovation이 NeoProfen을 취득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경쟁을 축소했기 때문에 클레이튼법 제7조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독점가격을 설정·유지함으로써 FTC법 제5조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FTC는 미네소타주 연방지방법원에 Ovation의 독점가격 책정행위 중지, 불법 획득이윤 반납, 기업분할, 향후 계열사 및 합작투자 등을 통한 Indocin 및 NeoProfen의 이해관련 행위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경쟁당국은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판단해 가격담합 이외에 기업의 가격책정행위에 개입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 FTC가 연방법원에 시정조치를 구한 내용에는 Ovation이 획득한 독점이윤의 반납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연방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2008년 12월 16일, 연방거래위원회)

미국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LG디스플레이(한국), Sharp(일본), Chunghwa(대만) 등 3개사가 2001년부터 2006년 6월까지 대만, 한국, 일본, 미국 등지에서 TFT-LCD(Thin-Film Transistor-Liquid Crystal Display) 패널가격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수차례 개최했고, 담합참가업체들이 합의된 가격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정보를 상호간 교환해 온 사실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3개사 간에 합의된 벌금수준은 LG디스플레이 4억 달러, Sharp 1억 2,000만 달러, Chunghwa 6,500만 달러다.

LG디스플레이에 부과된 벌금 4억 달러는 법무부가 개별 회사에 부과한 벌금 중 비타민 카르텔과 관련해 호프만-라로쉬에 부과한 5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금액이다.

Thomas Barnett 독점금지국 차관보는 "이번 카르텔은 컴퓨터, 휴대폰 등 수많은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이번 조치는 카르텔이 발생하는 장소에 관계없이 미국 경쟁당국이 철저히 조사할 것임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08년 10월 15일, 법무부)

● ● ● 미 국 ● ● ●

가공토마토제품 브로커 사기·돈세탁·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가공토마토제품 브로커가 사기, 가격고정, 부정 입찰, 그리고 계약배정과 돈세탁 혐의를 받고 있다고 캘리포니아 동부지역 검사 McGreger W. Scott과 독점금지국 법무대행보좌관 Deborah A. Garza가 밝혔다.

브로커인 Randall Lee Rahal은 사기와 돈세탁,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 한편, 정부의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고 60만 달러 이상의 벌금 지불에도 동의했다. 그는 가까운 시일 내에 새크라멘토 지방법원에 유죄를 선고받기 위해 출두할 것으로 보인다.

Rahal은 뉴저지의 Intramark USA Inc의 대표이사로서, 뉴저지를 근거로 가공토마토제품을 포함한 각종 재료 등을 판매하는 도매상이다. 그에 대한 세 가지 중죄는 캘리포니아의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지방법원에서 제기되었다. Rahal은 캘리포니아의 Monterey, Williams, Ripon 그리고 Lemoore 등지에서 토마토 재배 및 가공업체인 SK Food LP의 세일즈 브로커 역할을 맡아왔다. Rahal은 브로커로서 SK Food와 고객, 기업들 간의 계약에 관한 협상 및 결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왔고, SK Food의 고문과 지휘자로도 활동했다. SK Food의 고객은 미국 전 지역에 걸친 식품 생산업자를 포함해 도매·소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Scott 검사는 "토마토는 전국적으로 식품생산업자들에 의해 사용되며 캘리포니아 동부지역에서 재배·수확된다. 우리는 반드시 가공토마토산업의 부정부패와 불법상납 및 결탁을 근절시킬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밝힌 혐의에 의하면 SK Food와 관련된 법인단체들은 사기기업들 구성했다. 이 단체는 Rahal과 SK Food의 대표자와 종업원들이 다양한 불법 활동을 조정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SK Food 대표자들과 종업원들은 SK Food의 고객들 중 구매담

당자들에게 다른 경쟁업체의 제품보다 SK Food의 제품을 구매하게 만들 목적으로 규칙적으로 뇌물을 상납했다. 또 고객들에게 과장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도록 조장했으며, 구매담당자들로 하여금 경쟁업체의 입찰정보를 SK Food에게 제공하도록 설득했다. Rahal은 이런 뇌물상납에 기여했으며 돈세탁 혐의도 받고 있다.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SK Food와 거래할 수 있도록 Rahal은 조작된 회계 및 거래정보를 SK Food의 고객들에게 제공했다.

Rahal은 2004년과 2008년 사이에 계약조건에 맞지 않고 품질이 떨어지는 가공토마토제품을 SK Food 고객들에게 판매했으며, 질 낮은 제품을 감추고 SK Food 고객들을 기만할 목적으로 내부서류와 고객서류를 위조했다.

그리고 2006년 2월과 2008년 4월 사이에는 SK Food의 대표적인 가공토마토제품에 대한 가격을 고정하고 계약을 할당했으며, 사기입찰을 조장했다. 이는 셔먼법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독점금지국 법무대행보좌관인 Garza는 "이런 행위는 구매자들이 경쟁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감소시키고 고객들로 하여금 주요 식품을 높은 가격에 구매하게 만들었다. 독점금지국은 소비자들을 속이는 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기죄의 최대형량은 20년, 돈세탁 혐의는 10년, 그리고 셔먼법 위반 혐의는 최대 10년의 구금형을 선고 받는다. 셔먼법에 의한 벌금은 최대 범죄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의 2배 혹은 피해자가 입은 손실의 2배의 금액이다.

이번 조사는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의 동부지방검사와 독점금지국, 그리고 FBI가 주도했다.

(2008년 12월 10일, 법무부)

해양호스 국제카르텔 혐의로 Dunlop 제재



영 국제 해양호스(Marine Hose) 제조업체인 Dunlop은 미국 및 다른 지역에서 입찰담합, 가격고정, 시장분할 등의 국제카르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4억 5,400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

해양호스란, 유조선 탱크와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고무 송유관을 말한다.

Dunlop은 Manuli, Parker ITR(이탈리아), Trelleborg(덴마크), Bridgestone(일본) 등 4개사와 1999년 초부터 2007년 5월까지 해양호스 시장분할 및 판매가격 결정, 결정된 가격의 실행, 입찰시 사전 낙찰자 내정 등에 대해 공모했다.

Dunlop은 해양호스 국제카르텔과 관련해 Manuli(200만 달러 벌금 부과)에 이어 법인으로 제재를 받은 두 번째 회사에 해당된다.

이번 국제카르텔에 참여한 회사들의 중역들은 이미 개인별 제재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는 카르텔로 인해 미국내 석유 및 석유제품 운송 관련 회사와 미국 국방부가 피해를 입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해양용 호스 및 석유관련 제품의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했다.

(2008년 12월 1일, 법무부)

소속사	국적	이름	형량 (벌금, 징역)		선고시기
Dunlop	영국	Bryan Allison	10만 달러	24개월	2007년 12월
		David Brammar	7.5만 달러	20개월	2007년 12월
		Peter Whittle	10만 달러	30개월	2007년 12월
Trelleborg	덴마크	Christian Caleca	7.5만 달러	14개월	2007년 12월
		Jacques Cognard	10만 달러	14개월	2007년 12월
Parker ITR	이탈리아	G. Scodiggio	2만 달러	6개월	2008년 8월
Manuli	이탈리아	Charles Gillespie	2만 달러	12개월	2007년 12월
		Robert Furness	7.5만 달러	14개월	판결 대기
Bridgestone	일본	Misao Hioki	8만 달러	24개월	2008년 12월
PhoenixAG	독일	Uwe Bangert	2007년 7월 기소		

●●●● 미국 ●●●●

해양플라스틱건설자재 입찰담합 제조업체 대표에 징역형 & 세계적 맥주회사간 기업결합에 계열 맥주회사 매각명령



미 국 캘리포니아 Rialto 지역의 해양 플라스틱 건설자재(말뚝) 제조업체 대표인 Andrew Barmakian은, 본인이 지역내 경쟁업체들과 공모해 2000년 12월부터 2003년 5월까지 미국 해군과 연안경비대, 기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실시한 구매 입찰에서 고객분할 및 가격에 관해 공모했음을 인정하고 미국 법무부와 징역형 및 벌금을 부과받는데 합의했다.

법무부와 합의내용을 토대로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최종적인 벌금과 징역형 수준이 결정될 전망이다. Barmakian은 이번 카르텔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한 5번째 기업체 중역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해양 플라스틱 건설자재 입찰담합과 관련해 실형이 확정된 해양 건설자재업체 간부는 4명으로, 벌금부과액은 최저 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징역형은 최소 4개월에서 최고 2년에 이르고 있다.

Thomas Barnett 독점금지국 차관보는 "이번 사건은 정부와 민간분야에서 국방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주요 인프라를 입찰방식으로 구매할 경우, 보다 경쟁적 계약이 되도록 하려는 법무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 플라스틱 말뚝은 종전의 목재 말뚝에 비해 내구성과 환경 문제 측면에서 우수하여 항구 및 제방 건설공사에 목재 말뚝을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다.

(2008년 11월 17일, 법무부)

법 무부는 세계 2위의 맥주회사인 벨기에의 InBev N.V./S.A가 미국내 1위 맥주회사인 Anheuser-Busch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미국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경쟁제한 문제가 없지만 뉴욕주의 버팔로, 로체스터, 시라큐스 지역에서는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 상기 3개 지역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InBev의 Labatt 브랜드(Labatt USA)와 관련 맥주 제조 및 판매자산 일체를 미국내 다른 업체에게 매각하라며 동의명령을 내렸다.

Anheuser-Busch는 버드와이저, 버드라이트 등의 유명브랜드를 가진 미국내 최대의 맥주회사로서, 약 50% 정도의 미국내 병맥주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7년도 수익은 166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벨기에 회사인 InBev는 세계 2위의 맥주회사로,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브랜드는 Stella, Artois, Becks, Bass, Labatt Blue로, 2007년도 매출액은 144억 유로에 이르고 있다.

InBev의 맥주는 미국에서 2% 미만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라뱃블루 브랜드(Labatt USA)는 상기 버팔로, 로체스터, 시라큐스 3개 지역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Labatt Blue 브랜드 매각 등을 담은 동의명령안을 콜롬비아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2008년 11월 14일, 법무부)

••• E U •••

네덜란드 항공사간 합병 승인 & BHP Billiton, Rio Tinto 합병계획 철회



EU위원회(경쟁총국)는 네덜란드 항공사인 KLM 과 MartinAir 간의 합병에 대해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판단하고 이를 승인했다.

EU위원회는 두 항공사간 합병이 지역 항공사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첫째, KLM은 사실상 MartinAir를 지배하고 있고, MartinAir의 경쟁력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KLM의 지원 없이는 독자생존이 힘들다고 판단했다. MartinAir는 KLM과 Maresk가 50:50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다.

둘째, 문제가 된 두 노선에는 ArkeFly라는 경쟁사가 존재해 합병 후의 가격 인상이 직접적인 이윤 증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점, 셋째, 다른 중복 노선의 경우에도 경쟁성을 위협할 정도의 시장집중 증대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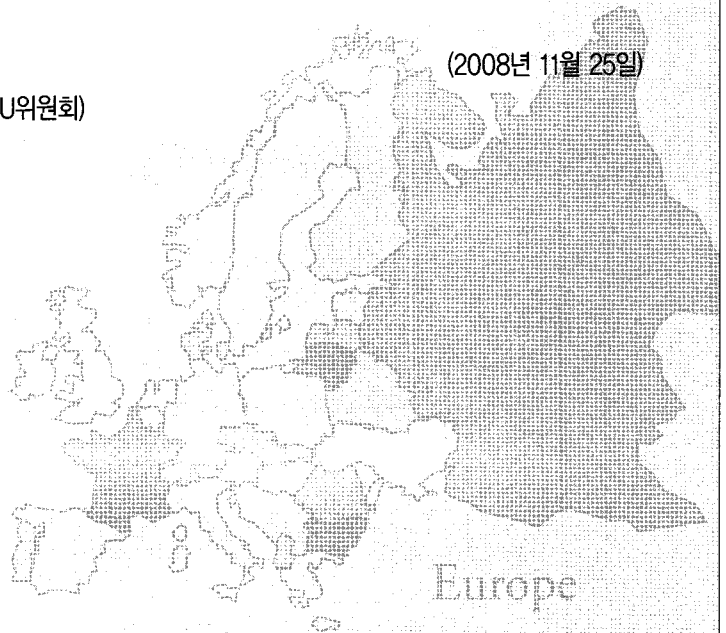
(2008년 12월 17일, EU위원회)

BHP Billiton의 Don Argus 회장은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BHP의 Rio Tinto 인수합병 계획과 관련해, 계속되는 세계경제 여건 악화와 주주들에게 미칠 위험성 등에 대한 우려를 감안, 합병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호주 언론들은 세계 철광기업 1위와 3위인 BHP의 Rio Tinto 인수합병(약 1,350억 달러) 철회로 인해 거대 철광회사의 출현이 좌절됐다고 보도하면서, 이번 합병 철회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한 철광석 가격 급락 및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이 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이번 합병에 반대해 온 EU위원회의 이의 제기 및 중국과 일본 경쟁당국의 견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2008년 11월 25일)





전자우편 관련 결정 동의 위해 슬로바키아 정부에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 제기



EU위원회는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절차를 위해 슬로바키아 정부에 공식적인 우편을 통해 이를 통보했다.

2008년 10월 7일 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정으로, 슬로바키아 정부에 하이브리드 메일시장의 경쟁성 향상을 위한 개방을 요구했으나 실패했다. 공식적인 우편에 의한 통보는 소송절차의 첫 번째 단계로, 이는 EC조약(Treaty) 제226조에 의거한 것이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현재 사업자인 Slovenska Posta에게 과거에 경쟁이 가능했던 하이브리드 메일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불법적으로 확장시켜 주었다.

위원회는 슬로바키아 정부에게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슬로바키아 정부는 2개월 내에 위원회에 조치내역을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Neelie Kroes 경쟁위원은 "슬로바키아 당국은 10월에 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따라서 법률 제정을 수정해야 하고 이를 통보해야 한다. 또 개인 사업자들도 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하이브리드 메일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Slovenska Posta가 하이브리드 메일 서비스를 독점할 수 있도록 우편법을 수정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메일 서비스 분야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개인사업자들의 시장 진출을 저해시켰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EC조약 시장지배위치법 제82조와 제86조에 의거한 것이다.

이 법은 회원국에게 공기업과 관련된 정책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거나 회원국의 기업에게 전적으로 독점금지법을 포함한 관련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런 독점행위는 소비자들과 하이브리드 메일시장에 투자한 기업들에게 손해를 입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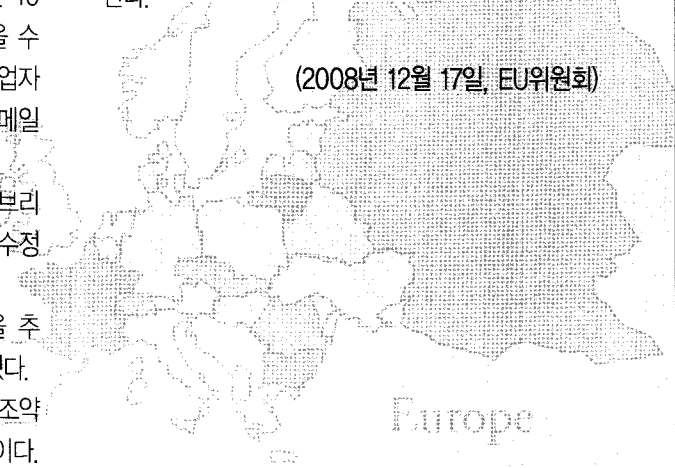
슬로바키아 정부는 11월 8일까지 위원회로 하이브리드 메일 서비스를 국제법에 의거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슬로바키아 정부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는 정책을 통보하지 않았다.

Slovenska Posta와 슬로바키아 당국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사를 표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그러한 의견 개진은 어떠한 영향을 줄 수도 없으며 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

2008년 10월 7일에 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은 국제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슬로바키아 정부는 공식적인 통보에 대한 답변을 2개월 이내에 해야만 한다.

(2008년 12월 17일, EU위원회)



제약산업에 대한 'Sector Inquiry' 1차 조사결과 발표



EU위원회는 특정 산업분야에서의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징후가 있을 경우, 해당 산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제조사(Sector Inquiry)를 추진해 오고 있다. 2005년에는 에너지분야 및 금융분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008년 조사를 실시한 제약산업의 경우, 신약 개발이 점차 줄어들고 복제약품 및 일반의약품의 시장진입 지연 등의 징후가 발견되어, 같은 해 1월 대형 제약사에 대한 전격적인 기습조사를 시작으로 일제조사가 개시됐다.

위원회는 1차 조사결과, 신약개발사(Originator)가 복제약품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목적으로, 특허 관련소송을 집중 제기하고 있는 행위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행위유형들로는 첫째, 자사의 신약을 모방한 복제약품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특허 관련 소송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거나, 소송의 불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소송을 다수의 소송으로 분산 제기하는 방식이 널리 활용됐다. 약 700건의 조사대상 소송 중 2000년부터 2007년 기간 중 법원판결이 확정된 149건의 평균 소송기간은 2.8년이었으며, 복제약품 제조사가 더 많이 승소(승소율 60%)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부담한 소송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68개 약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EU 역내에서만 총 4억 2,000만 유로로 추정됐다. 신약개발사와 복제약품 제조사 간에 이루어진 특허분쟁 합의내용에는 복제약품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례가 많이 나타났고, 그 대가로 신약개발사가 복제약품 제조사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지급(조사된 20건에 대해서만 약 2억 유로 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행위유형으로는 신약개발사가 복제약품의 출시를 위한 행정절차과정에 복제약품의 안정성 및 효능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적극 개입,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이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런 행위로 인해 복제약품 출시가 평균 4개월 정도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행위유형으로는 신약개발사가 특허기간 만료 직전에 2세대 제품을 출시하고 집중 홍보 등을 통해 수요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이를 통해 복제약품 출시를 최대한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약개발사 간에도 여러 가지 경쟁제한행위들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약개발사들의 기본적인 특허전략의 주된 목적은 새로운 신약 개발 및 출시가 아니라, 경쟁사의 경쟁제품 개발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또 신약개발사간 연구개발 프로그램이나 특허 공유사례, 제품 출시와 관련된 다수의 합의사례 등으로 인해, 신약 개발 및 출시경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행 규제체계의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첫째, 기업의 소송비용 절감 및 회원국간 상치되는 판결을 방지하기 위해 EU 역내에 단일특허체계를 수립할 것 둘째, 신속한 제품 출시 및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의 인력 확충과 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을 제고할 것 등이다.

위원회는 금번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9년 1월 31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상반기 중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경쟁법 위반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및 제재조치와 제도개선방안이 잇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Europe

(2008년 11월 28일, EU위원회)

●●● E U ●●●

시장독점혐의 자동차유리 제조업자에게 13억 유로 벌금 부과



EU위원회는 총 13억 8,389만6,000유로의 벌금을 Asahi, Pilkington, St. Gobain, 그리고 Soliver에게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 기업들은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인 EEA (European Economic Area)에 납품될 자동차 유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으며 불법적으로 시장을 점유했다.

이는 EC조약과 EEA협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EC 조약 제81조, EEA협정 제53조).

Asahi, Pilkington, 그리고 St. Gobain 등 3개 기업은 유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1998년 초반과 2003년 초반 사이에 이들 기업은 연속적인 회의와 불법적인 계약을 통해 시장점유와 상품가격, 그리고 고객분배에 대해 논의했다. The Belgain와 Soliver도 가끔씩 이 회의에 참여했다. 이들 4개 기업은 EEA에서 새로운 자동차에 사용되는 유리나 자동차 유리 교체제품의 90%를 통제했으며, 2007년 20억 유로에 달하는 관련 시장을 침해했다.

이번 사건에 부과된 벌금액은 위원회가 부과한 벌금 중 가장 높은 액수의 벌금이다.

St. Gobain은 상습위반업체여서 벌금을 60% 인상했지만, Asahi는 위원회에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Leniency Notice에 의해 벌금이 50% 삭감됐다.

Neele Kroes 경쟁위원은 "이 기업들은 자동차산업과 자동차 구매자들을 5년간 속여 왔으며, 2007년에는 20억 유로에 달하는 시장에서 기업연합을 구축했다"면서 "광범위한 시장규모와 사태의 심각성, 그리고 St. Gobain의 상습적 위반으로 벌금 총

액이 비교적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위원회는 이런 불법적 행위를 묵인할 수 없으므로 높은 벌금을 부과했지만, 카르텔로 인해 소비자들과 유럽 산업에 피해를 준 기업 경영자들과 주주들은 이번 일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누군가를 속인다면 큰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자동차 유리는 윈드 스크린, 선루프, 사이드 라이트, 백라이트와 같이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자동차 산업에 사용된다. 자동차 유리 제조·제공업자의 가장 큰 소비자는 자동차에 유리를 조립하는 자동차 제조업자이다. 일부 자동차 유리는 교체제품으로 저장되기도 한다.

위원회는 신뢰성이 있는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는데, 수사 후에 일본계 기업인 Asahi Glass Co.와 유럽의 AGC flat Glass(舊 Glaverbel)는 2002년 Leniency Notice에 적용됐다.

Leniency Notice에 의하면 위원회가 기업 카르텔을 수사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면 기업은 최대 100%까지 벌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Asahi와 Glaverbel은 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벌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었다.

(2008년 11월 12일, EU위원회)

Europe

*** 독일 ***

결빙방지제 제조업자에게 벌금 부과 & E.ON의 Eschwege 합병금지 확인



연 방카르텔청은 Heilbronn에 위치한 Sudalz GmbH에게 Road Salt(결빙방지제) 시장에 대한 반경쟁협정혐의로 1,56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1998년 중순부터 2007년 중순까지 Sudalz GmbH와 Wacker-Chemie AG는 도매업을 경영해 오면서 Southern Bavaria와 Baden-Wurtemberg에 판매할 Road Salt의 가격을 담합했다.

이 담합은 독일 남부의 유통지역을 분배하는 역할을 했다.

결과적으로, Baden-Wurtemberg 시장의 2/3 가량과 Bavaria 시장의 절반 가량이 Sudal GmbH에 할당되었다.

그러나 Sudal GmbH에 대한 벌금형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Sudal GmbH는 Dsseldorf 연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연방카르텔청은 관련된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결빙방지제 제조업자들은 가격담합에 대해 인정했으며, 카르텔감면제도를 신청했다.

(2008년 11월 12일, 연방카르텔청)

연 방재판소는 연방카르텔청이 E.ON그룹이 Eschwege의 지역설비의 33%를 소유하는 협정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동의했다.

연방법원에서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지역설비에 투자를 촉진시키고, 추가적인 전기설비분야의 급진적 통합을 방지하기 위한 연방카르텔청의 합병금지결정을 다시금 확인해 주었다.

독일의 전국적인 전기설비시장에 대한 조사결과, 연방카르텔청은 E.ON과 RWE가 가전제품시장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며, 생산과 판매의 시작점에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독일의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전기제품의 60%가 E.ON과 RWE가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해온 제품들이다.

또한 독일 전기제품시장은 여전히 지배적인 E.ON과 RWE의 과점에 의해 조정되고 있으며, 이 두 회사는 지역설비분야의 지속적인 주식매입을 공동으로 협의해 시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재판소는 독일 국경 근처에서 낮은 전송용량위 접속망에 대해 명확히 언급했다. 이는 독일시장에 대한 외국 전기공급자들의 진출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schwege와 같은 강력한 지역설비제조공사업자들의 개입으로 생산을 고착시키고, 이로 인해 전기설비시장의 경쟁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경쟁법에 적합한 전기설비시장의 구조를 고안하고 촉진시키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경쟁구조는 최종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의 전기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공자를 여러 번 교체하는 역할도 한다.

(2008년 11월 11일, 연방카르텔청)

◆◆◆ 일본 ◆◆◆

BHB Billitom의 Rio Tinto 주식매입기도 수사 종결 & 가격담합한 아연도금강판 제조판매업자 고소



공 공정취인위원회는 2008년 12월 2일 Rio Tinto Limited와 Rio Tinto pic의 모든 주식을 매입하려던 BHB Billiton Limited와 BHB pic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과 관련된 조사를 종결했다.

이는 같은 해 11월 27일에 BHB Billiton이 주식취득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공표했기 때문이다.

공정취인위원회는 2008년 7월 BHB Billiton Limited의 기업인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했다.

만약 인수가 성사됐다면, 해상무역으로 제공되는 강철과 석탄교역의 경쟁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이번 수사는 공정취인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BHB Billiton가 제공한 정보와 소비자들과 경쟁업체들이 공정취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제공해준 정보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공정취인위원회는 일본시장의 경쟁성에 영향을 끼치는 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합병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2008년 12월 3일, 공정취인위원회)

공 공정취인위원회는 아연도금강판 제조판매업자와 관련해 가격담합에 대해 수사한 결과, Nippon Steel & Sumikin Coated Sheet Coporation(日鐵住金鋼板株式會社)을 포함한 3개의 기업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고소했다.

고소된 기업은 Nipponsteel & Sumikin Coated Sheet Coporation과 Nisshin Steel Co., Ltd(日新製鋼株式會社), 그리고 Yodogawa Steel Works, Ltd(株式會社淀川製鋼所)이다.

이들 3개 기업은 도금된 아연알루미늄 합금판과 스트립을 생산하고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에게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기업의 종업원들은 2006년 4월 무렵부터 같은 해 6월 무렵까지 상기제품을 제조·판매하는데 종사했다.

그들은 가격담합을 위한 회합을 도쿄에서 개최하는 등 같은 해 7월에 판매될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는데 동의했다.

이 가격은 같은 해 6월에 판매되었던 제품보다 kg당 10엔이 더 높은 가격이었다.

결국 세 기업의 가격담합은 공익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경쟁성을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2008년 11월 11일, 공정취인위원회)

통신서비스산업 심포지엄 결과 보고서 발표



법무부는 2007년 11월 개최한 '통신산업에서
의 경쟁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심포지엄' 결
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통신산업의 부분별 발전상황'
'통신서비스 산업에서의 경쟁도입 효과' '잠재적
진입장벽' '법무부의 반독점법 집행과 경쟁주창 역
할'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최근 통신산업의 부분별 발전상황'에서는
비디오, 전화, 광대역 서비스의 3개 분야별로 미국
에서의 발전 상황들이 소개되어 있다.

비디오 서비스 분야에 전화회사가 진출해 유선방송
사와 광대역 직접 위성 서비스와 경쟁하고 있는
점, 유선방송사업체가 전화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
고 있는 점,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광대역 서비
스를 받고 있는 미국내 가구 수가 20배로 증가하
는 등 광대역 서비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이 적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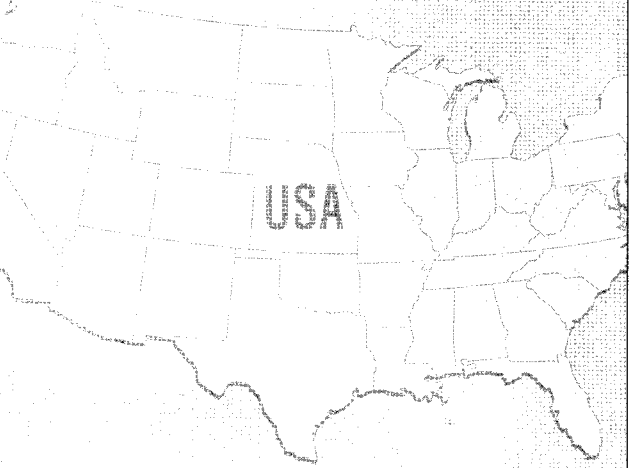
제2장 '통신서비스 산업에서의 경쟁도입 효과'에서
는 비디오 서비스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
고 인터넷 접속기기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 지고
있는 점, 광대역 서비스업자의 진출 확대, 기술 발
달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저렴한 결합상품 가격, 유
선전화와 무선전화간 경쟁, 신규진출 사업자의 가
격에 미치는 영향 등)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제3장 '잠재적 진입장벽'에서는 미비된 법
규의 제정은 신규 진입을 막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
하고 있다는 점과 현존 사업자들의 신규진입 방해
행위 유형 등이 적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제4장 '법무성의 반독점법 집행과 경쟁
주창 역할'에서는 통신산업에서 발생하는 기업결
합, 독과점적 기업의 단독행위나 기업들의 협력행
위는 경쟁당국이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하는 분야에
해당된다는 점, 법무부는 통신서비스 산업을 계속
감시하는 한편 반독점법 위반행위를 조사해서 소비
자피해를 방지할 것, 또 법무부가 경쟁정책 주창자
로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것 등이 수록 되어 있다.

한편, 보고서의 영문 명칭은 "Voice, Video and
Broadband : The Changing Competitive
Landscape and Its Impact on Consumers"이
며, 보고서 원문은 [http://www.usdoj.gov/
atr/public/reports/239284.pdf](http://www.usdoj.gov/atr/public/reports/239284.pdf)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08년 11월 17일, 법무부)



●●●● 미국 ●●●●

AAI, 차기정부 위한 경쟁정책 제안서 발간 & FTC, 아동용 소비자교육 웹사이트 개설

미 국반독점연구소(American Antitrust Institute; AAI)는 차기 행정부를 위해 카르텔·독점·구매자파워·기업결합·집행조직·사적집행·연론·식품산업·건강의료산업·에너지산업 등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된 경쟁정책 제안서를 발간했다. 미국반독점연구소는 경쟁원리의 확산을 주창하는 비영리 연구단체로, 미국내 경제학자, 법학자, 변호사, 전직관료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이다. 미국반독점연구소가 발간한 제안서는 차기정부의 경쟁정책 추진에 참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문명 "The American Antitrust Institute's Transition Report on Competition Policy to the 44th President to the United States"인 보고서의 상세한 내용은 www.antitrustinstitute.org/archives/transitionreport.ashx를 참조하면 된다.

연 방거래위원회(FTC)가 아동들에게 연방거래위원회 임무와 미국내 상거래에서 연방거래위원회 역할의 중요성 등에 대해 소개하는 아동 교육용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웹사이트 주소는 [http:// www.ftc.gov/YouAreHere](http://www.ftc.gov/YouAreHere)이다.

William Kovacic 위원장은 "아동 교육용 웹사이트는 연방거래위원회의 업무를 미래의 소비자인 아동들의 생활에 연결시키면서 소비자에 대한 조언, 일상생활에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알려주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Kovacic 위원장은 또 "이 웹사이트는 경쟁의 혜택을 아동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아동들이 더욱 지혜로운 소비자가 되는 방법과 기업의 광고가 어떻게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기업들을 다루는 정부의 법규정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시지사업자의 배제적 행위 집행 가이드라인 발표 & 'International Product Safety Week' 행사 개최



EU위원회는 EC조약 82조와 관련,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제적 행위에 관한 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의 영문명은 "Guideline on the Commission's Enforcement Priorities in Applying Article 82 EC Treaty to Abusive Exclusionary Conduct by Dominant Undertakings"이다.

위원회는 상기 가이드라인이 경쟁당국의 시장지배력 남용 관련 단독행위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 졌음을 밝히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방법, 배타조건부 거래, 끼워팔기 등 배제적 행위의 유형에 따른 고려요소도 기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원문은 <http://ec.europa.eu/comm/competition/antitrust/art82/guidance.pdf>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8년 12월 3일, EU위원회)

EU위원회는 2008년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1주일을 'International Product Safety Week'로 선정, EU·미국·중국에 참여하는 제품 안전과 관련된 일련의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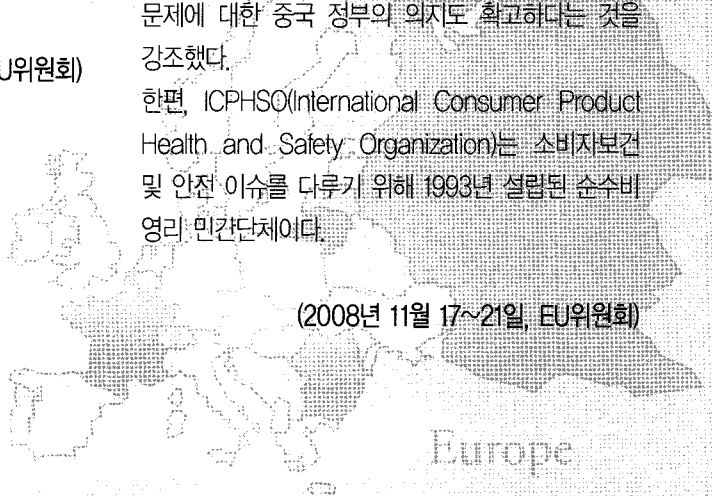
국제회의는 11월 17일 'EU·미국·중국 3개국 제품 안전 최고책임자 회의'(the First High Level Trilateral Summit on Product Safety)를 시작으로, 18~19일 ICPHSO 주관 제품안전 심포지엄, 20일 EMARS 주최의 '정부당국의 제품안전 시장감시 역량 강화를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컨퍼런스', 21일 '제3차 EU·중국의 시장감시역량 제고 세미나' 등이 연이어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 중국 정부는 중국산 제품의 안전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와 관심을 충분히 인식한 듯, 총 40명이 넘는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했다.

또, 각종 발표기회를 통해 최근 중국내 제품안전(Product Safety)에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도 확고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ICPHSO(International Consumer Product Health and Safety Organization)는 소비자보건 및 안전 이슈를 다루기 위해 1993년 설립된 순수비영리 민간단체이다.

(2008년 11월 17~21일, EU위원회)



● ● ● E U ● ● ●

영국의 여행기업간 합병불허 결정한 EU위원회 “손해배상 책임 없다”



EU사법재판소 1심법원(Court fo First Instance)은 영국의 여행기업간 인수합병에 대한 EU위원회의 불허결정이 EU사법재판소에서 취소됨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건에서 위원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999년 4월 29일 영국의 여행사 MyTravel Group이 영국내 경쟁사인 First Choice 인수계획을 발표하고, 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위원회는 같은 해 9월 22일 두 회사 간의 결합으로 인해 영국의 단거리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시장에서의 과도한 시장지배력 형성과 소비자후생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2002년 6월 6일 MyTravel이 위원회의 불허결정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EU사법재판소는 위원회의 불허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2003년 6월 18일 MyTravel은 위원회의 불허결정으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 위원회를 상대로 총 5억1,790만 파운드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EU사법재판소(1심)는 “EC조약(Treaty)상 재량권행사에 있어서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Manifest and Grave Disregard)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기업결합심사의 경우, 매우 제한된 시간범위 내에서 복잡한 시장상황 등을 분석해야 하며 기업결합과 관련해 위원회에 부여된 재량권 범위 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적시하면서, “본 건과 관련해 위원회

의 불허결정 과정 상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명백하고 심각한 흠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008년 9월 2일, EU사법재판소)

